

미용업 분야의 사회보험 가입 실태 및 분석에 관한 연구 -헤어, 네일, 피부, 메이크업 분야를 중심으로-

최서연* · 이현진**

*한서대학교 건강관리학과 · **서경대학교 미용예술학과

The study of Beauty industry parts' current social insurance status and its analysis

Seo-Yeon Choi* · Hyun-Jin Lee**

*Dept. of Health Management, Hanseo University

**Dept. of Beauty and Arts, Seokyeong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seek beauty industry parts' current social insurance admission status. To achieve the purposes, questionnaire was distributed to a total of 470 beauty artists and data were analyzed by statistical analysis.

The result of study proposed that hairdresser showed the highest awareness and field of nail art showed the lowest awareness in social insurance admission status.

Social insurance admission status shows that beauty artists in hair field had the most applicants of national pension, health insurance,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and beauty artists of skin field had the highest desire for social insurance application.

This study hopes to be used as base line data of social insurance applicants' accurate status and application.

Keywords : Beauty Art Business, Social Insurance, National Pension, Health Insurance, Employment Insurance,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 Corresponding Author : Seo-Yeon Choi, Dept. of Health Management,
Hanseo University, Hanseo 1-ro Haemi-Myun, Seosan-Si, Chungcheongnam-Do. 356-706.
Tel : 032-860-8702, E-mail : welcom-news@hanmail.net

Received October 20, 2013; Revision Received December 9, 2013; Accepted December 9, 2013.

I. 서론

사회보장제도는 사회보장을 의미하는 Social Security에서 시작되었으며, Security의 어원은 Se(=Without, 해방) + Cura(=Car, 근심 또는 괴로워하는 것)로 ‘불안을 없게 한다.’는 뜻이 담겨 있다. 즉, Social Security는 사회적 불안을 제거한다는 의미와 평온한 삶을 사회가 보장한다는 뜻으로 이해되며, 질병이나 분만·실업·폐질·직업상의 상해·노령 및 사망으로 인한 소득의 상실이나 감소 등으로 인한 경제적 곤궁에서 유래하는 근심과 불안을 제거함으로써 사회 평화를 도모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우리나라는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1호에서 “사회보장이란 질병·장애·노령·실업·사망 등 각종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며[1],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관련복지제도로 크게 나누어 운영되고 있다. 이 중 사회보험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이 기본 틀을 이루고 있으며,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86.7%, 국민건강보험 86.6%, 고용보험 87.5%, 산업재해보상보험 97.3%로 보고되고 있다[2].

현재의 사회보험제도는 적게 내고 많이 받는 저부담·고지급 체계를 택하고 있어 현 세대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미래 세대는 자금의 고갈로 고부담을 강요받으면서 지금의 혜택을 보장받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적인 지적도 대두되고 있다[3]. 그러나 사회 구성원들이 근로 생애 가운데 질병, 재해, 노령, 실업 등에 직면하게 되는 사회 위험 및 그 가능성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구축은 매우 중요하다[4].

미용업은 다른 직종에 비하여 여성의 비중이 높고 이직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아직까지 정확한 근로자의 현황 파악이 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회 보장의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피부 미용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에서는 프렌차이즈로 운영되고 있는 업체의 4대 보험 가입률이 92%이고 개인 운영

업체는 미가입률이 80%로 보고되고 있어 근무하고 있는 업체의 유형에 따라 사회보험 가입 여부에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피부 미용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단편적인 연구로 전체 미용업 종사자의 4대 보험 가입 실태에 관한 연구는 아직까지 이루어진 바가 없다[5].

현재 4대 사회보험은 상호정보가 연계 되어 실제 사회보험 중 하나라도 가입 시 다른 사회보험도 함께 가입되는 시스템이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미용업 종사자가 하나의 사회보험이라도 가입이 되는 경우 다른 사회보험도 동시에 가입되고 관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회보험에 대한 인식 확립과 가입 유도는 매우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용업 종사자의 사회보험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고 사회보험 가입 실태와 가입 희망 여부를 파악하여 미용업 종사자의 사회보험 가입 발판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2. 연구 대상 및 방법

2.1 연구 기간 및 대상

본 연구는 ‘미용업 종사자의 산업안전보건 실태 및 산재예방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2011년 4월부터 8월까지 서울 및 경기 지역의 미용업 종사자 55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중 ‘무응답’, ‘모름’ 등의 응답이 불성실한 자료를 제외한 470명을 최종 분석 대상자로 선정하였으며, 헤어 분야 139명, 네일 분야 147명, 피부 분야 91명, 메이크업 분야 93명이 참여하였다.

2.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미용업 종사자의 일반적 특성(연령, 결혼 여부, 월 급여 기준의 소득 수준), 고용형태, 사회보험 가입 인식도,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현황 및 가입 희망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2.3 통계방법

본 연구에 사용된 통계 분석은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의 경우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미용업 분야별 고용형태 차이, 미용업 종사자의 분야별 사회보험 가입에 인식 차이, 미용업 분야별 사회보험 가입 실태 및 가입 희망 여부, 미용업 종사자의 고용 형태별 사회보험 희망 여부는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통계 분석은 SPSS 18.0을 사용하였다.

3. 결과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고용형태 차이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이 연령의 경우 21세 미만 64명(13.6%), 21세 이상 31세 미만 225명(47.9%), 31세 이상 41세 미만 131명(27.9%), 41세 이상 50명(10.6%)으로 21세 이상 31세 미만의 참여가 가장 많았으며, 결혼은 미혼 321명(68.3%), 기혼 149명(31.7%), 월 급여 기준의 소득 수준은 100만원 미만 91명(19.4%),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181명(38.5%),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103명(21.9%), 300만원 이상 95명(20.2%)으로 나타났다.

<Table 1> Generic characteristic

기초 인적 특성		n	%
연령	21세 미만	64	13.6
	21세 이상 31세 미만	225	47.9
	31세 이상 41세 미만	131	27.9
	41세 이상	50	10.6
결혼여부	미혼	321	68.3
	기혼	149	31.7
소득수준 (월 급여)	100만원 미만	91	19.4
	100-200만원	181	38.5
	200-300만원	103	21.9
	300만원 이상	95	20.2
합계		470	100.0

3.1.2 미용업 분야별 고용형태 차이

미용업 분야별 고용형태의 차이는 Table 2와 같이 정규직의 경우 헤어 분야 67명(48.2%), 피부 분야 42명(46.2%)으로 가장 많았으며, 비정규직은 네일 분야 82명(55.8%), 개인사업자는 메이크업 분야 33명(35.5%)으로 나타나 미용 분야별로 차이를 보였다($p < 0.001$).

<Table 2> The difference in beauty industry parts' employment status

고용 형태	미용 분야				합계	χ^2
	헤어	네일	피부	메이크업		
정규직	67(48.2)	23(15.6)	42(46.2)	31(33.3)	163(34.7)	54.058***
비정규직	30(21.6)	82(55.8)	29(31.9)	29(31.2)	170(36.2)	
개인사업자	42(30.2)	42(28.6)	20(22.0)	33(35.5)	137(29.1)	
합계	139(100.0)	147(100.0)	91(100.0)	93(100.0)	470(100.0)	

*** $p < 0.001$

<Table 3> Awareness status of beauty industry parts' social insurance

사회보험 가입에 대한 인식도	미용 분야				합계	χ ²
	헤어	네일	피부	메이크업		
가입 필요	94(67.6)	85(57.8)	58(63.7)	60(64.5)	297(63.2)	3.078
가입 불필요	45(32.4)	62(42.2)	33(36.3)	33(35.5)	173(36.8)	
합계	139(100.0)	147(100.0)	91(100.0)	93(100.0)	470(100.0)	

3.2 미용업 종사자의 분야별 사회보험 가입에 인식 차이

근로자를 대상으로 가입되고 있는 사회보험(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대한 미용업 분야별 인식 여부에 대하여 Table 3과 같이 헤어 분야 94명(67.6%), 네일 분야 85명(57.8%), 피부 분야 58명(63.7%), 메이크업 분야 60명(64.5%)으로 헤어 분야 종사자의 인식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네일 분야 근로자의 인식도가 낮게 나타났다.

3.3 미용업 분야별 사회보험 가입 실태 및 가입 희망 여부

3.3.1 미용업 분야별 사회보험 가입 실태

미용업 분야별 사회보험의 가입 실태는 <Table 4>와 같이 국민연금 가입은 헤어 분야가 63명(45.3%)으로 가장 많았으며, 미가입은 메이크업 분야 41명(44.1%), 가입여부를 모른다는 피부 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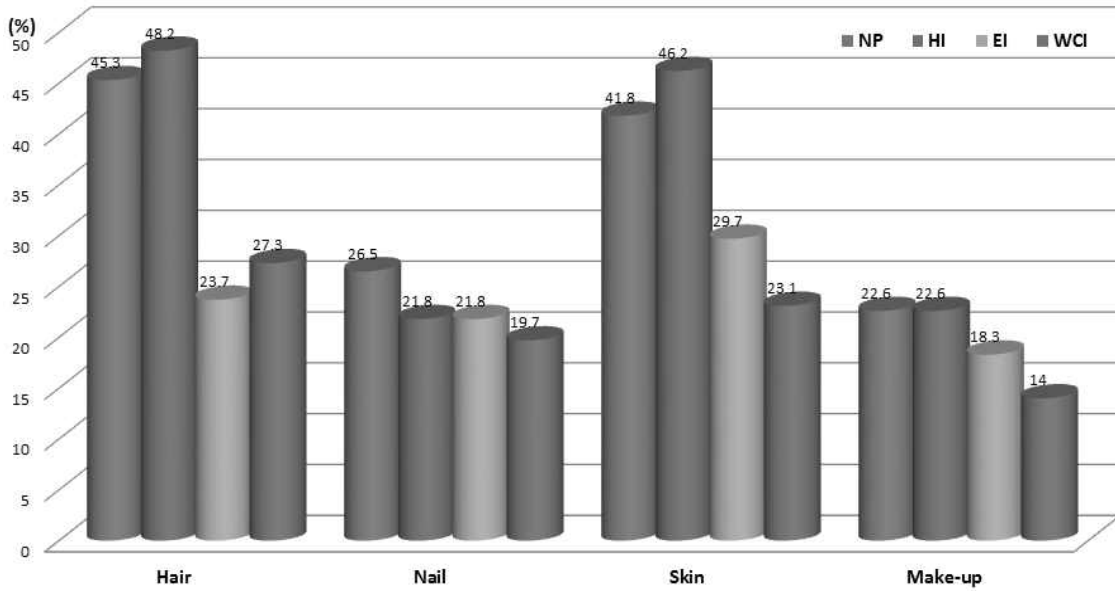
야가 39명(52.9%)으로 가장 많았다(p<0.001).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은 헤어 분야가 67명(48.2%)으로 가장 많았으며, 미가입은 피부 분야 41명(46.2%), 가입여부를 모른다 또한 피부 분야가 41명(45.1%)으로 가장 많았다(p<0.001). 고용보험의 가입은 피부 분야가 27명(29.7%)으로 가장 많았으며, 미가입은 메이크업 분야가 41명(44.1%), 가입여부를 모른다는 피부 분야가 45명(49.5%)으로 가장 많았다(p<0.05).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은 헤어 분야가 38명(27.3%)으로 가장 많았으며, 미가입은 메이크업 43명(46.2%), 가입여부를 모른다는 피부 분야 49명(53.8%)으로 가장 많았다(p<0.05).

미용업 각 분야별 4대 보험 가입 현황은 [Figure 1]과 같이 헤어 분야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가입이 67명(48.2%), 국민연금 63명(45.3%)으로 가장 많았으며, 네일 분야는 국민연금 39명(26.5%), 피부 분야는 국민건강보험 42명(46.2%), 국민연금 38명(41.8%), 메이크업 분야는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이 각각 21명(22.6%)으로 가입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미용업 분야별로 차이를 보였다.

<Table 4> The difference in beauty industry parts' social insurance admission status

사회보험 가입 현황		분류				합계	χ ²
		헤어	네일	피부	메이크업		
국민연금	가입	63(45.3)	39(26.5)	38(41.8)	21(22.6)	161(34.3)	31.501***
	미가입	32(23.0)	52(35.4)	14(15.4)	41(44.1)	139(29.6)	
	모른다	44(31.7)	56(38.1)	39(42.9)	31(33.3)	170(36.2)	
국민건강보험	가입	67(48.2)	32(21.8)	42(46.2)	21(22.6)	162(34.5)	52.989***
	미가입	28(20.1)	52(35.4)	8(8.8)	41(44.1)	129(27.4)	
	모른다	44(31.7)	63(42.9)	41(45.1)	31(33.3)	179(38.1)	
고용보험	가입	33(23.7)	32(21.8)	27(29.7)	17(18.3)	109(23.2)	12.982*
	미가입	42(30.2)	54(36.7)	19(20.9)	41(44.1)	156(33.2)	
	모른다	64(46.0)	61(41.5)	45(49.5)	35(37.6)	205(43.6)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38(27.3)	29(19.7)	21(23.1)	13(14.0)	101(21.5)	15.342*
	미가입	44(31.7)	54(36.7)	21(23.1)	43(46.2)	162(34.5)	
	모른다	57(41.0)	64(43.5)	49(53.8)	37(39.8)	207(44.0)	
합계		139(100.0)	147(100.0)	91(100.0)	93(100.0)	470(100.0)	

* p<0.05, *** p<0.001



[Figure 1] Individual beauty industry parts' 4 major social insurance admission status

<Table 5> Beauty industry parts' desire for social insurance

사회보험 가입 희망 여부		분류				합계	χ ²
		헤어	네일	피부	메이크업		
국민연금	가입	111(79.9)	86(58.5)	82(90.1)	66(71.0)	345(73.4)	32.974***
	미가입	28(20.1)	61(41.5)	9(9.9)	27(29.0)	125(26.6)	
국민건강보험	가입	118(84.9)	90(61.2)	82(90.1)	70(75.3)	360(76.6)	34.074***
	미가입	21(15.1)	57(38.8)	9(9.9)	23(24.7)	110(23.4)	
고용보험	가입	110(79.1)	90(61.2)	77(84.6)	70(75.3)	347(73.8)	19.693***
	미가입	29(20.9)	57(38.8)	14(15.4)	23(24.7)	123(26.2)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110(79.1)	90(61.2)	77(84.6)	68(73.1)	345(73.4)	19.373***
	미가입	29(20.9)	57(38.8)	14(15.4)	25(26.9)	125(26.6)	
합계		139(100.0)	147(100.0)	91(100.0)	93(100.0)	470(100.0)	

3.3.2 미용업 분야별 사회보험 희망 여부

미용업 분야별 사회보험의 가입 희망 여부는 Table 5와 같이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모두 피부 분야의 가입 희망이 가장 많았으며, 네일 분야의 가입 희망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미용업 분야별로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1). 또한 헤어 분야는 국민건강보험의 가입 희망이 가장 많았으며, 네일 분야는 국민건강보험과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피부 분야는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 메이크업 분야는 국민건강보험과 고용보험 가입 희망이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Table 6> Beauty industry parts' desire for social insurance in their form of employment

사회보험 가입 희망 여부	미용업 종사자의 고용 형태			합계	χ ²
	정규직	비정규직	개인사업자		
예	124(76.1)	132(77.6)	97(70.8)	353(75.1)	2.026
아니오	39(23.9)	38(22.4)	40(29.2)	117(24.9)	
합계	163(100.0)	170(100.0)	137(100.0)	470(100.0)	

3.4 미용업 종사자의 고용 형태별 사회보험 희망 여부

미용업 종사자의 고용 형태에 따른 사회보험의 가입 희망 여부는 <Table 6>과 같이 고용 형태에 관계없이 가입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비정규직의 가입 희망이 132명(77.6%)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고용형태에 따른 통계적인 차이는 없었다.

4. 결론 및 고찰

사회 구성원들의 삶의 주기에서 겪는 다양한 위험(노령, 질병, 재해, 실업, 장애 등)으로부터 빈곤화 되지 않도록 사회 차원에서 보장하고 이미 빈곤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최저한의 생활을 보장과 빈곤으로부터 탈피하도록 하는 제도의 정립은 사회 안전망 구축에 있다[6].

미용업은 대형화·고급화를 보이고 있으며, 병원과 화장품 대기업 및 프랜차이즈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다양한 업체들이 진출하고 있어 미용사들의 근무처는 확장되고 있다. 그러나 미용업의 사업주와 종사자 대부분이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어 인적 자원에 대한 중요성이 부족하고 고용형태의 불안정이 팽배하기 때문에 4대 보험에 대한 인식 부족과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5].

본 연구 결과 첫째, 미용업 종사자의 사회보험에 대한 필요성 인식은 약 63%였고 헤어 분야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전반적으로 사회보험에 대한 인식은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박주연(2012)의 미용서비스업 고용주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에서는 고용주의 고용형태가 4대 보험 가입과 미가입이 섞인 정규직이 많으며, 사업주의 입장에

서도 사회보험 가입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7].

둘째, 본 연구에서는 헤어 분야와 피부 분야 종사자의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 가입이 다른 분야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으나 미용업 분야에 관계없이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은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김경숙(2012)은 미용사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가입자가 미가입자보다 4배가량 많다고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은 미가입자의 비중이 높다는 결과를 뒷받침하고 있어 비정규직이 많고 이직률이 높은 미용업의 특성으로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률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었다[8].

셋째, 사회보험의 가입 희망에 대해서는 헤어 분야의 경우 국민건강보험의 가입 희망이 가장 많았으며, 네일 분야는 국민건강보험과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피부 분야는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 메이크업 분야는 국민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의 가입 희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보험 가입 인식도에 비하여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가입 희망 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실질적으로 사회보험에 대한 가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장미화(2003)와 고경아(2004)는 미용사의 이직을 막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고용형태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종사자의 4대 보험 가입이 중요하다고 하였으며, 사회보험 가입의 장점을 알리고 고용주 및 미용업 종사자가 가입을 할 수 있는 환경 개선이 요구된다고 하였다[9][10].

본 연구는 지금까지 시도되지 않았던 미용업 각 분야별 종사자를 대상으로 사회보험 가입 실태에 관한 분석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그 의의가 있다. 미용업 종사자는 저임금, 고용 불안 등으로 사회보험 가입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예상

되기 때문에 미용업 종사자에게 사회보장 제도의 혜택을 제공하고 미래를 위하여 준비할 수 있도록 정확한 사회보험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수행하지 못한 미용업 종사자의 근무 특성 등을 반영한 사회보험 가입 실태 및 필요성, 미가입 이유 등에 관한 연구가 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5. References

- [1] Social insurance information system, <http://www.4insure.or.kr/ins4/ptl/Main.do>.
- [2]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2012). 2012 Survey report on labor conditions by employment type. pp29.
- [3] 김병갑(2000). 4대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살펴본 한국사회보험의 문제점 및 정책 대안 연구. 대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1-11.
- [4] 김현석(2004).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산재보험제도의 기능과 역할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10-12.
- [5] Kim, NamJoo(2010). Analysis of job satisfaction, job stability, and turnover factor in estheticians : comparison by work-place form and by employment form. Sungshin Women's University . pp19, 43.
- [6] 김옥희(1999). 대량실업시대의 사회안전망 확충방향.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1999년도 춘계. pp342-368.
- [7] Park, JooYeone(2012). The Effects on Employment Satisfaction by the Management's Awareness on the Employment and Financial Support in the Beauty Service. Seokyeong University. pp33.
- [8] Kim, KyungSook(2012). A Study on the Influence of Social Insurance Coverage on Turnover Intention of Hairdressers. Kon yang University. pp84-86.
- [9] Jang, MiWha (2003). Perspective Difference on Turnover between managers and employees of Beauty Artists and Suggestions

for Decreasing Turn-over Rate. Cho sun University. pp65-66.

- [10] Ko, KyeongA(2004). Study on hairdressing development through seeking a method for improving a separation rate of beauty artists. Chungang University. pp82-83.

저 자 소 개

최 서 연



현 한국RMS(주) 수석연구원으로 재직중.
인하대학교 산업공학과 공학박사, 인하대학교 의학과 사회 및 예방의학 박사 과정.
관심분야는 인간공학

주소: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 1,4동 인하대학교 2북 668A

이 현 진



서경대학교 미용예술학과 석사 및 박사 수료
현재 정화예술대학 미용예술학부 교수
관심분야: 미용보건, 미용경영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6길 21 정화예술대학